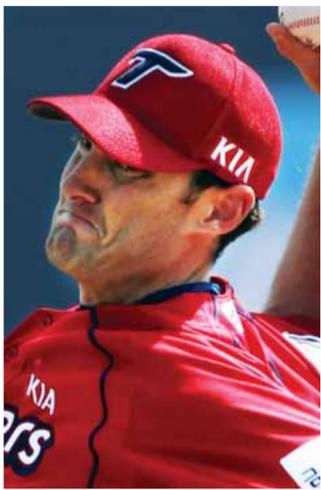


리허설 끝 KIA 반전 시작



윤석민



협버



한승희



임준희

5승1무6패로 '호랑이 군단'의 시범경기가 종료됐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2-8 승리를 거뒀다. 5연패 뒤 두산전 2-2 무승부를 기록했던 KIA는 시범경기 마지막 상대 kt에게 2승을 챙기며 5승1무6패로 2015시즌 리허설을 끝냈다.

협버와 윤석민이 나란히 출격하면서 마운드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진행됐다.

앞선 연습경기과 시범경기 등판에서 각각 팔꿈치 부상과 손가락 찰과상을 입으며 일찍 마운드를 내려야 했던 협버는 3이닝을 소화해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협버는 1회말 장성호와 박기혁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마르테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더블플레이로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 했다. 2회와 3회는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총 27개의 공을 던졌다. 20개의 직구를 던진 협버의 최고 구속은 148km, 슬라이더(141km·4개), 커브(124km·2개), 체인지업(139km·1개)의 변화구도 점검했다.

김기태 감독이 "마지막 등판을 보고난 뒤 결정을 하겠다"며 보직 확정을 보류했던 윤석민의 세 번째 피칭도 이뤄졌다. 결과

시범경기 5승1무6패 최종 7위

협버·윤석민, 마지막 시험대 호투

한기주, 2군경기서 2이닝 무실점

는 3이닝 2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 1실점(비자책)이었다.

첫 타자 박기혁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한 윤석민은 마르테와의 승부에서 파울 플레이로 두 아웃을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을 쫓던 포수 이성우가 공을 놓치면서 마르테가 다시 타석에 섰고, 6구째 던진 공이 좌측 담장을 넘어갔다. 이후 좌익수 플라야와 유격수 땅볼로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비자책으로 기록됐다.

5회 김사연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준 뒤 탈삼진 행진을 시작했다. 이치찬을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윤석민은 용덕환의 승부 때 4회와 비슷한 플레이 상황을 경험했다. 플레이 타구를 쫓던 1루수 최희섭이 공을 잡지 못하면서 용덕환이 다시 타석

에 섰지만 이번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깔끔하게 승부를 끝냈다. 배병욱을 유격수 땅볼로 돌리며 5회를 마무리한 윤석민은 6회에는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며 위력을 발휘했다. 마지막 타구는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한국 복귀 후 세 번째 등판이자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을 끝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를 찍었다.

윤석민은 "아직 던지는 느낌이 불편하고 어색하다. 4회 빠진 공은 슬라이더다. 그렇게 던진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아직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닝을 거듭하면서 점점 경기 운영이 좋아지고 있다. 예전 경기 하는 기억도 떠오르고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한기주가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송원대와의 연습경기 등판한 한기주는 2이닝 무실점으로 두 번째 실전 등판을 끝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를 기록했다. 한편 KIA는 연습경기 없이 훈련일정을 소화하면서 오는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2015시즌 개막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볼건 다 해본다

필, 2루수 깜짝 기용

최희섭-이범호 클린업

김기태 "비상사태 대비"

"비상사태라면..."

시범경기 최종전이 열린 22일 KIA의 2루 자리가 '핫코너'가 됐다. 이날 경기 전 2루수로 외국인 선수 필이 예고되면서 2루가 화제의 자리가 된 것이다.

시즌을 앞둔 마지막 시험무대에서 김기태 감독은 특별한 시험을 했다. 이날 김원섭(중견수)과 강한울(유격수)을 테이블 세터로 세운 김기태 감독은 필-최희섭(1루수)-이범호(3루수)로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다. 또 6번과 7번 자리에 각각 나지완(좌익수)과 신종길(우익수)을 세우며 타선의 힘을 더했고, 김다원(지명타자)과 이성우(포수)에게 하위타순을 맡겼다. 외야수 김주찬이 빠지는 했지만 필을 2루로 돌리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 타순을 구성했다.

경기 전 필의 2루 기용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설명을 했다.

김 감독은 "지금은 시범경기니까 (시험)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비상사태시 다른 포지션에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라고 이야기를 했다.

필이 예상외로 좋은 수비를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 경기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웃음을 보인 김기태 감독. 만일을 위한 대비라고는 했지만 필은 예상보다 좋은 수비 실력을 선보였다.

1회말 2사 1루에서 강한울과 더블플레이를 합작한 필은 2회 첫 아웃카운트로 땅볼로 처리했다. 안정민 포구로 4회 첫 아웃카운트로 만들어내는 등 한국 무대 첫 2루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필을 2루로 배치하면서 화력을 집중시킨 타순도 성공적이었다. 이성우의 선두타자로 안타로 시작된 3회초 공격에서 KIA의 테이블 세터진이 볼넷과 투수 내야안타로 살아나가면서 만루를 채웠고 필은 착실하게 희생플레이로 타점을 올렸다. 이범호의 타구가 장외를 넘어가면서 3점포가 되는 등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3회 대거 4점을 뽑아내는 등 성공했다. 4회에는 7번에 선 신종길의 2루타를 시작으로 해서 추가 득점이 나왔고, 필은 다시 한번 희생플레이로 타점을 만들었다.

필은 경기 끝난 뒤 "어려운 타구들이 아니어서 잘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외야 보다는 오히려 2루 자리가 더 편하다. 1루와 비교해서도 2루 수비도 괜찮다. 팀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역할이든 상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필의 2루수 시험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올 시즌 KIA의 공·수 전략에 새로운 깜짝 카드가 더해졌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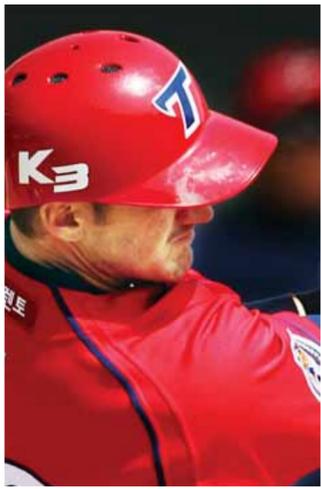
나지완



황대인



최희섭



필

박태환 '운명의 날'

오늘 스위스 로잔서 도핑 청문회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수영스타 박태환(26)에게 '운명의 날'이 왔다.

박태환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다룰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23일(이하 현지시간) FINA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예초 청문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태환 측에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 박태환은 검찰 수사 결과 등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해명한 뒤 FINA 청문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서석초 야구부,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 출전

수원병원장배 우승

서석초 야구부가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서석초가 지난 21일 본량리뜰구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수원병원장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예선대회 결승전에서 학강초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A·B조로 나뉜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서석초는 대회 첫 상대였던 화정초를 11-3(4회콜드)으로 제압한 뒤 대성초를 8-2로 누르며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B조 2위인 수창초와의 준결승에서 7-3으로 승리를 거둔 서석초는 학강초까지 제압하며 우승팀이 됐다.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 자격도 얻었다. 중등부 소년체전 예선은 24일부터 3일간 무등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석초가 제2회 광주수원병원장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예선대회 결승에서 학강초를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수상내역 = ▲최우수선수: 최지욱(서석초) ▲우수투수상: 송성종(서석초) ▲타격상: 김준모(수창초·0.625) ▲최다도루상: 송성종(서석초·9개) ▲최다타점상: 최지욱(서석초·7타점) ▲감독상: 김환(학강초) ▲미기상: 하상욱(서석초) ▲감독상: 양윤희(서석초) ▲지도상: 강주오(서석초·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